

지역 소식통

군산경찰, '포켓몬GO' 게임 관련 사건·사고 예방활동 만전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에서는 증강 현실게임 '포켓몬GO'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몰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특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포켓몬GO' 게임이란 이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와 GPS를 이용, 현실공간을 게임상의 가상공간으로 인식하고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여 훈련·강화·대전·거래하는 게임으로 보행·운전 중에도 게임에 몰입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주의를 의식하지 않아 경계가 허술해져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롯데마트, 예술의전당 근대역사박물관 등 게임몰입 우려지역 4개소를 선정하고 순찰차 거점근무 등 가시적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관제센터 실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사고발생 우려 시 즉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보행·운전 중 증강현실게임 이용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군산경찰도 범죄예방전담팀을 활용하여 관련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사전 파악하고 군산시와 협의, 범죄·사고 예방 시설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늘푸른도서관 5월까지 1차 야간문화강좌 운영

군산시 나운동 늘푸른도서관(구 보건소)이 이달부터 5월까지 2017년 1차 야간문화강좌를 운영한다.

도서관 야간문화강좌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주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야간에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한다.

야간문화강좌는 ▲에쁜글씨 POP(성인 12명), ▲프랑스 자수(성인 12명), ▲리빙 퀴트(성인 12명) 3강좌이며,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30분에 운영한다.

수강료는 3천원이며, 재료비는 별도이다. 수강생 모집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v.kr)를 참조하거나 늘푸른도서관(☎454-5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개교 19주년 기념행사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지난 3일 대학 산학협력관에 서 전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개교 1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석남 학장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아우영 이사장의 기념사 대독을 통해 지난 2016년의 사업 성과와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학의 당면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석남 학장은 학생 기념사를 통해 "익산캠퍼스가 대한민국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폴리텍 미션 수행의 선두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 추진

명품 트래킹 코스 조성

군산시 육도면 말도~명도~방축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사업 실시계획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9월중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고군산군도 최서쪽에 위치한 말도리 유인도서인 말도, 명도, 방축도와 무인도서인 보농도, 광대섬을 포함한 5개 섬을 4개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 행정부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1백70억원(국비 136, 도비 17, 시비 17)을 확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11월 경관심의를 통해 결정된 교량형식 및 디자인을 토대로 올 초 고군산군도 여건에 최적화되어 아울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재와 공법 등을 선정했다.

각 교량은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로 총 연장 1천2백78m로 설계중이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해 9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의원들

'군산조선소가동 중단 결정 철회' 촉구

"가동 유지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은 물론 국가차원 지원 해야" 주장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일에 이어 6일에도 현대중공업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에서 군산조선소가동 중단 결정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경구 부의장과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의원 8명은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전북 경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우며 전복을 포기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토크 폐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6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는 등 재정상태가 갈수록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간 받았던 특혜와 10년간 구축했던 인프라 무엇보다도 현대중공업이 있기까지 파밤출력 노력한 근로자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군산조선소가 가동 유지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은 물론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신흥정수장 일대 무인헬기 동원 AI 차단 일제소독

익산시는 농협과 함께 무인헬기과 광역방제기를 총 동원해 익산 신흥정수장 일대 왕지평에서 AI 차단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남하하던 철새들이 북상을 준비하면서 점차 익산시 금강, 만경강으로 집결하고 있고 먹이를 찾아 평야지대로 자주 출몰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는 농협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무인헬기 3대와 시 광역방제차량 2대를 이용해 지난 2월3~4일에 왕지평 일대를 일제소독 했다.

무인헬기 방제는 기후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적정량의 소독약을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철새들이 북상하면서 우리가 30만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신흥정수장 일대에 철새, 까마귀 등이 자주 출몰하고 있어 시와 농협이 협업을 통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게 됐다"며 "정적악인 사수를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현저히 줄고 있지만 아직도 전주, 정읍

김경구 부의장은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은 전북청년의 꿈까지 빼앗아 가고, 도내 우수 인력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전북 경제를 황폐화 시킨다"며 "존치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오는 14일 민병이 참가하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대규모 쉼터대회에 참여해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미래를 향한 꿈, 해양경찰에 도전하세요
해경, 2017년 제1차 채용공고

6일 해양경찰은 2017년 제1차 채용공고를 내고 경찰공무원 230명, 일반직공무원 69명 등 총 299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채용에서 경찰공무원 간부후보 10명(경위를 비롯해 순경 합계) 170명, 특공 40명, 해경학과 10명을 선발하고 일반직 공무원(9급) 69명(화공 9명, 선박 항해·기관·관제 48명, 환경 8명, 잠수기술 2명, 정보보호 2명) 등 총 11개 분야로 나눠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은 ▲ 화공 : 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선박 항해·기관·관제 : 5급 이상 해기사 자격증 소지자 ▲ 환경 : 해양환경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수질·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분야별 응시지역은 경찰관의 경우 ▲ 합정요원 : 해경 의경 전역자, 5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 해군 부사관 이상으로 합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퇴직 후 3년 이내) ▲ 해경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경 관련학과를 졸업, 재학 중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 ▲ 특공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특수부대(공고문 참조)에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번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은 전남 여수시 소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소정의 신입교육을 수료 후 입선 현장에 배치되어 해양안전관리 및 해양환경 관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응시지역 및 시험일정 등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8. ~ 2.22까지 15일간 해양경비안전본부 원서 접수 사이트(http://gso.kog.gok.kr)로 접수가 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연중 추진

군산시는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7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 지도·점검은 명절연휴와 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확대하고, 전년도 미 점검 배출업소를 비롯해 중점관리 대상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점검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민금지방환경경청, 전북도, 민간환경감사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시가별로 실시한다.

황대성 환경정책과장은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맞춤형 통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혁신교육특구 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가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익산혁신교육특구'로 지정 승인 받은 가운데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이 '혁신, 가치, 지치지'에 목표를 두고 익산혁신교육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혁신교육 특구 운영에는 2017~2018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가치」 혁신교육 1) 주제 4개 과제인 습리골 거버넌스 공동체, 습리골 행복학교공동체, 습리골 문화유산공동체, 습리골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게 된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익산혁신교육특구 추진단 운영, 교사학부모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 익산교육공동체 한마당 개최, 학교혁신 및 학부모 아카데미, 마을학교·농촌동 방과후학교, 익산문화유산 교육과정,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등

관내 104개 초·중·고 학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22개 사업이 시행된다.

익산혁신교육특구 운영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 구축으로 지역 교육력을 향상하여 교육 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정립하고 학교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자꾸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학생의 존엄성 신장을 도모하여 학생·학부모 등 익산 지역 주민의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혁신교육특구를 통해 특성화 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시민과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살기 좋은 익산, 교육하기 좋은 익산'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대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한아름씨, 치과의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 합격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치과대학 한아름(25) (사진)씨가 최근 시행된 치과 의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원광대는 제69회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한아름 양이 합격자 746명 중 수석의 영예를 안음으로써 2013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치과 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게 됐다.

전주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원광대 치의예과에 입학한 한아름

씨는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좌우명으로 꾸준히 노력한 것이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공부한 학우들, 그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부모님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수석의 영예를 안은 만큼 환자의 상태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하는 치과 의사가 되겠다"며, "앞으로 치과 전문의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도 치과대학장은 "한아름씨는 성실하고, 치바른 태도로 주변에서 평가가 매우 좋은 학생"이라며, "졸업한 2016년에 월등한 학업성적을 보여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했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 오미자 친환경 GAP안전생산기술 교육 실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 약초연구소에서는 동부산악권 중심으로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소득작목으로 오미자 고품질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GAP안전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미자 재배농가의 경우 토양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의 트렌드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재배농가의 기술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배농가 현장실용교육을 추진했다.

이전 현장실용교육은 토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품질 오미자 재배를 위한 효율적인 토양관리 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예정지관리, 적정시비, 생리장해 예방방법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되어 오미자 재배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를 초청하여 현장감 있는 친환경농법과 GAP 안전생산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전북오미자의 고품질·친환경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판매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농업기술원 김효진 연구사는 약초연구소에서는 오미자를 동부산악권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오미자연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